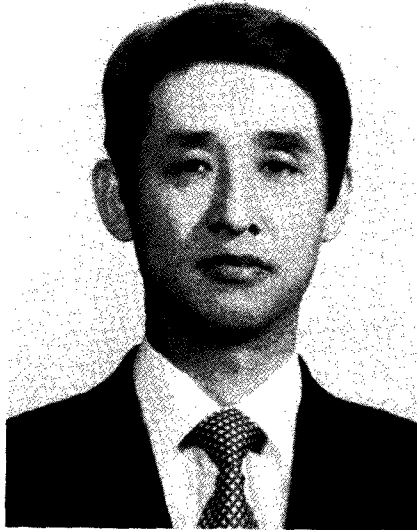


安定的 에너지 需給基盤確立



존경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곳 古里에 새로 原子力發電所 5,6號機의 건설을 마무리하고 그간 많은 애를 써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竣工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사비 1조 7천억원의 투입과 8년여의 긴 건설 기간을 거쳐 이제 준공을 보게 된 이 發電施設의 완공으로 우리나라는 총 3백81만6천KW의 용량을 갖

는 5기의 원자력 발전 시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력생산시설에서 원자력 발전이 점하는 비중이 22.3%에 이르게 되었고 발전량 기준으로는 3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랑스러운 竣工式典에서 본인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땀흘려 애써 주신 한국전력공사와 관계 건설업체의 임직원, 그리고 内外 技術陣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과 성취의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본인은 더없는 영광으로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國民經濟의 공업화 과정에서 산업에너지 需要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 시설의 건설에 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수요 증가분을 거의 석유 수입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어 2차에 걸친 原油價波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에너지의 對外依存度의 심화에 따라 대내

대한 意志와 信念과 矜持를

외적인 난제에 당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安定的 에너지需給 基盤을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자력 등 석유 代替에너지의 공급과 이용의 확대를 추구해오던 차에 이번 이 원자력 발전소의 준공, 가동을 보게 된 것은 에너지공급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간의 信念과 意志의 한 결실이어서 오늘의 이 행사는 벅찬 감격의 순간이며, 내일의 희망에 대한 우리 자신의 表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때 전력 생산의 80%를 석유에 의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5,6호기에 이어 7,8,9 그리고 10호기가 '89년 까지 모두 준공되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40%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석유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어 그 공급에 불안이 항존하고 있는 國際 에너지市場 狀況에 대비하면서 우리의 에너지供給基盤의 안정을 다지는 데 큰 진전을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동안 쌓아온 온 국민의 成長潛在力을 바탕으로 경제 개발의 時代的 責務를 성실히 수행하여 先進祖國을 건설하는 데 온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國際經濟環境은 다행히 우리의 이 소망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賦存에너지資源의 부족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76%를 해외에서 도입했으며, 약 65억불의 외화를 에너지 도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더욱이 에너지 자원의 海外依存度는 현재 전망으로서는 더욱 늘어갈 실정입니다.

國際油價는 하락 추세를 당분간 보일 것이나, 석유 자원의 有限性과 지역의 偏在 등으로 그 수급의 차질과 위험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에너지消費節約과 에너지 사용의 效率向上을 기하며, 국내 자원의 최대 활용, 원자력 개발의 추진, 그리고 에너지 新技術의 연구개발에 政策力點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低에너지消費의 産業構造로의 개편과 에너지 自給體制의 구축에 기본 정책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한번 에너지 소비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처럼 부존 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나라가 경제 발전을 계속하면서 국제 사회의 여러 부강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살아가기 위하여는 남보다 더 근면, 검소하고 절약하는 生活氣風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절약하는 것이 옳다는 倫理觀을 가져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成長制約要件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安全性에 관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 원자력 발전 시설의 安全問題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그 구조와 성능에 있어 소련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한 것입니다. 최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성에 크게 치중한 설계와 시공을 한 발전소이며, 5종의 防護施設 등 철저한 安全保障裝置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최근의 검사에서도 안전성에 한치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나, 정부는 만의 일에 대비하는 자세로 그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고, 先進技術陣과의 긴밀한 협조 조치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려 두고자 함

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사고 외에도 우리의 전력 문제에는 아직도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電源開發計劃을 늘 경제 여건의 전망과 견주어 검토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電力負荷와 設備管理를 경제적으로 하여 電源投資와 관리비를 절감하는 지혜도 넓혀 가야 합니다. 전력 料金體制와 構造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익을 보다 높이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改善補正對策 등의 마련에 더욱 勉勵해 갈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 기술진 여러분!

장기간 많은 인력과 막대한 財源을 들여 건설한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맡아 운영하게 될 여러분은 앞으로의 運營管理에 철저를 기하여 큰 성과를 擧揚하도록 熱과 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애써 이룩한 자랑스러운 업적을 더욱 빛내는 일이며 나라 발전에 큰 몫을 했다는 여러분의 긍지를 새롭게 해줄 것으로 믿어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발전소 건설에 많은 애를 써주신 여러분들의 그간의 勞苦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영예의 褒賞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그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이 발전소의 순조로운 앞날의 稼動을 기원하면서 치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動力資源部長官 崔 昌 洛